



11월 2일



베다니 마을에 나사로, 마르다, 마리아라는 세 남매가 있었어요.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어요.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.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서 나사로를 살려 주실 것을 믿었어요.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알렸어요.



며칠 후 나사로는 그만 죽고 말았어요.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.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듣고 밖으로 나갔어요.

“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.”

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

“마르다야,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!”



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어요.

“이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.”

그러자 마르다는 말했어요.

“예수님, 죽은 지 벌써 4일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요.”

“내 말을 믿으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. 어서 옮겨 놓으라.”



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어요.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을 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.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. “나사로야! 나오너라!”
그러자 죽었던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.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나 기뻐서 나사로를 끌어 안고 울었어요.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서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어요.

생각하는 아이

남우의 친구 아람이가 많이 아파서 유치원에도 못 왔어요.
남우는 아람이가 많이 걱정됐어요. 어떻게 하면 아람이가
빨리 나올 수 있을까요?

“엄마, 아람이가 많이 아파요. 아람이를 위해 뭘 해주면
좋을까요?”



“남우야, 우리 아람이를 위해 기도해 볼까?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려 주셨거든.”

“아! 알아요!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, 병든 사람도 고쳐 주셨어요!”

“그래, 아주 잘 배웠구나! 우리 아람이를 위해서 기도해 볼까?”

남우는 아람이가 빨리 낳아서 유치원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.



즐거은 활동등



그림을 보고 빈 칸에 알맞은 글자를 써 보세요.



		다
--	--	---

	사	
--	---	--



		아
--	--	---

마	
---	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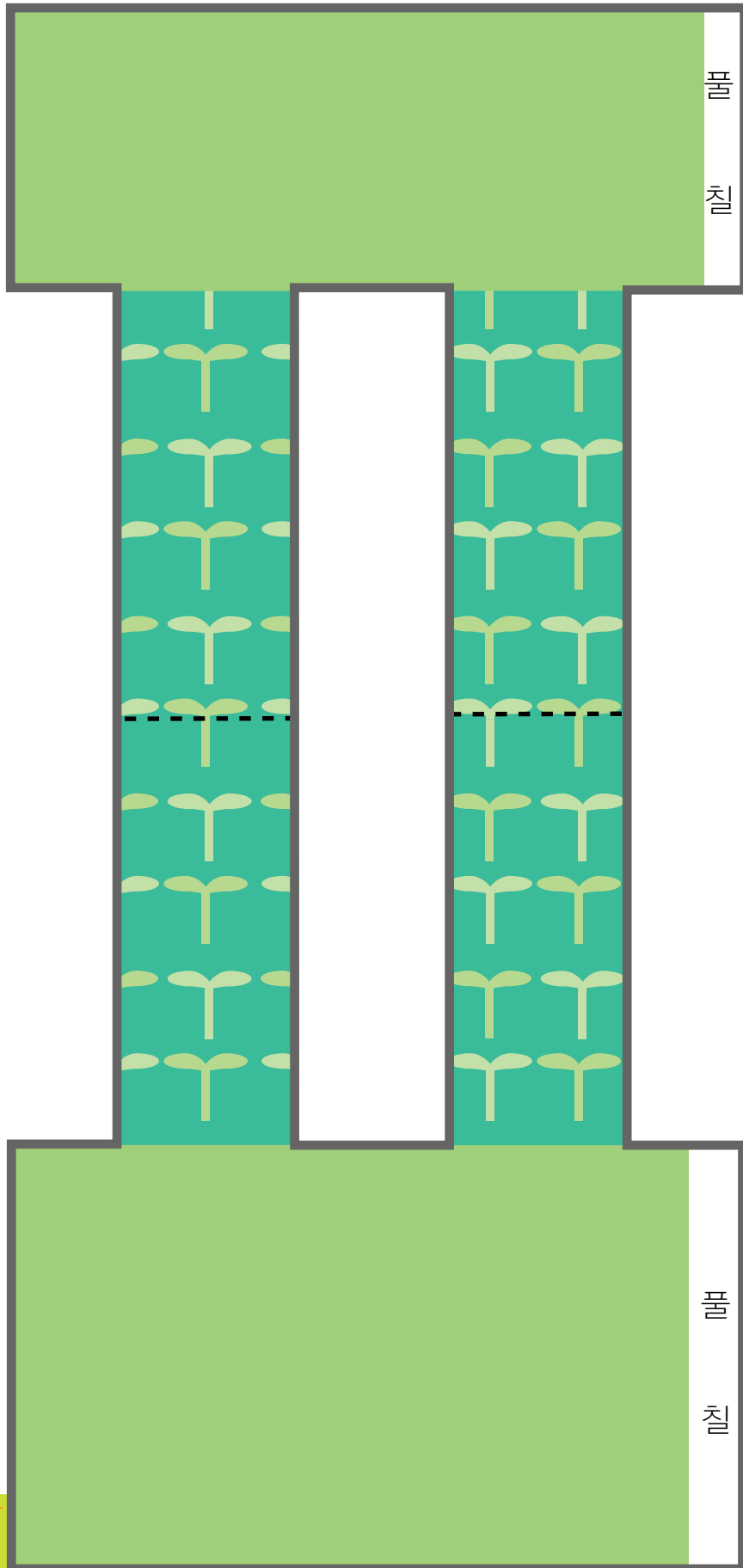


예		
---	--	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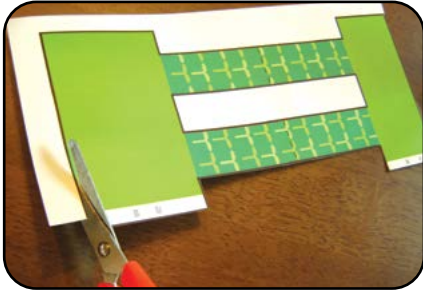
새싹이 돋았어요

* 만드는 방법은 49쪽에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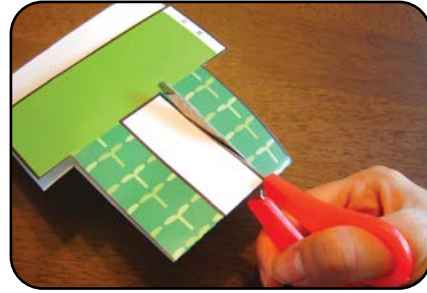
재밌는 만들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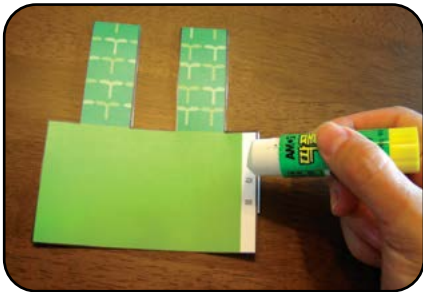
'새싹이 돋았어요' 47쪽 만드는 방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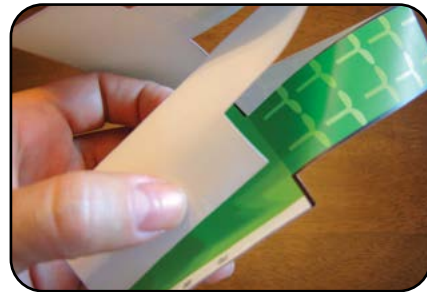
□ 그림을 오리세요.



□ 반으로 접어서 가운데를
오려내세요.



□ 길이가 긴 쪽에 풀칠을 하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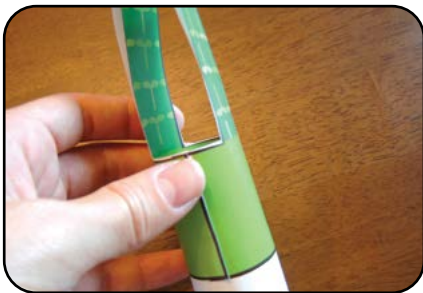
□ 안으로 동그랗게 말아서
붙이세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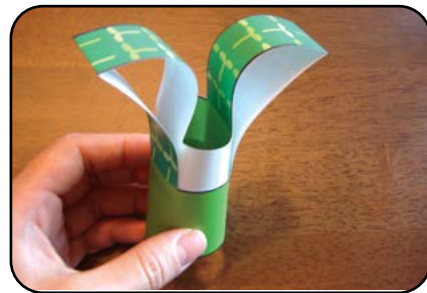
□ 길이가 짧은 면을 겹쳐서
말아서



□ 풀로 붙이세요.



□ 밑으로 나온 원기둥을
위로 올리면



□ 새싹이 돋아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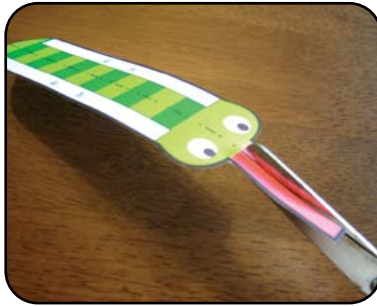
자르는선 ————— 접는선

'나비를 만들어요'

93쪽 만드는 방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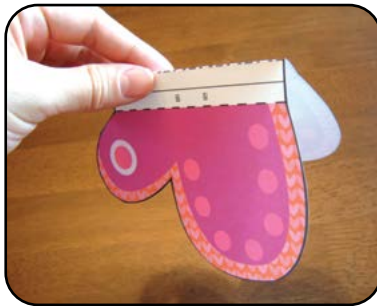
□ 그림을 오리세요.



□ 나비 더듬이를 자르고



□ 몸통을 반으로 접으세요.



□ 날개를 반으로 접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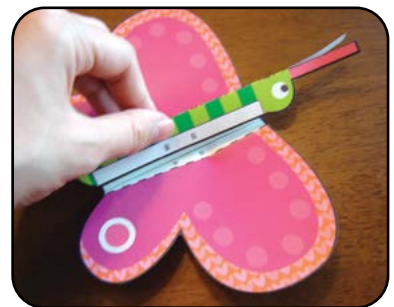
□ 양쪽을 반대로 한 번 더 접으세요.



□ 양쪽의 점선을 반대로 접어서



□ 풀칠을 하고



□ 나비의 몸통을 붙여요.



완성!

자르는 선 ————— 안으로 접는 선 - - - - -
 바깥으로 접는 선 - - - - -



마음속 암송

따라 쓰기

큰 소리로 나사로야
 나오라 부르시니
 요한복음
 11장 43절

다시 쓰기

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--	--	--	--	--	--	--	--

--	--	--	--

--	--	--	--	--	--	--

선생님께

부모님께